

# 전통조형의 분석적 고찰을 위한 체계

## Framework of Analizing Korea Traditional Aesthetics

민 경우

명지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이 순종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채 승진

연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Min, Kyung-Woo

Division of Design, Myong Ji University

Lee, Soon-Jong

Institute of Design, S.N.U

Chae, Sung-Zin

Dpt. of Industrial design, Yonsei University

• Key words: behavior, language, aim;object, formality;predicate, means;complement

### 1. 시작하며

#### (1)필요성과 연구방법

미래의 국제사회는 문화의 동질화 현상이 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고유한 문화는 인류를 발전시키는 창조적 원동력이 되고, 삶의 흥미와 생기를 불러 넣으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최근 한국의 전통조형에 관련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이뤄졌던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극히 개인적이고 부분적이며 산발적으로 이뤄졌기에, 그 내용이 단편적이고, 체계화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체계적 틀로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조형행위 또한)는 목표와 절차와 수단을 갖고 있다.

즉 인간은(또한 사회와 문화)어떤 사상(事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측면)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요소는 내용적 요소, 형식적 요소, 그리고 실질적 요소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내용적 요소는 사상의 가치, 관념, 의미, 그리고 목적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며, 형식적 요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사상의 단위들을 구성하는 방법, 원리, 규범, 절차, 형태 그리고 양식이며, 실질적 요소는 형식을 통하여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도구, 매체, 재료 그리고 기술 등을 가리킨다. 이 세 가지는 상호연관 되어 있어 이중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완벽한 구현을 이룰 수 없다.

인간이 표현코자 하는 사상(思想)과 의미는 거의 언어로 이뤄지고, 또한 그것의 구성요소를 층위별로 규칙을 갖고 체계화시켜놓은 것이 문장이므로 위의 내용들을 언어와 비교 연구하여 디자인(조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전통조형의 구현 체계에 관련된 분석의 틀을 만들었다.

### 2. 본글

#### 2-1. 구현체계

##### (1)분석

인간의 모든 언어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칙에 따라 소리와 뜻이 결합되어 단어를 구성하고 이 단어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배열하여 문장을 만든다.

여기에서 글을 바르게 만들어 쓰는 규칙을 문법이라고 하며,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언어의 형태소가 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원리와 단어가 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를 문법이라고 한다. 여기에 형태소가 배합되어 단어를 형성하는 원리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야를 형태론(morphology)이라고 하며, 문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원리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야를 통사론(syntax)이라고 한다.

통사론에서, 문장은 몇 개의 구성요소(constituent)로 짜인 하나의 구성체로 정의된다. 구성요소 즉 성분에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주성분, 종속성분, 독립성분, 접속성분 등이 있다.

주성분은 문장이 성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성분으로서 근간성분이라고도 한다. 주성분이 생략되면 완전한 문장이 성립되지 못하며, 이것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또한 종속성분에는 형용어와 부사어가 있다. 이 중에서 우선 주성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주어

문장의 주체가 되는 성분으로서 '무엇이(누구가) 무엇이다(누구이다)', '무엇이(누구가) 어찌한다', '무엇이(누구가) 어떠한다' 등이라고 하는 내용의 문장에서 '무엇이' 또는 '누구가'에 해당하는 말이다. 주어는 체언이나 용언의 명사형에 '이/가'가 결합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일상어에서 종종 주어가 생략되어도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으며, 주어를 생략하고 서술어의 어미변화로 주어의 인칭과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 ② 서술어

서술어는 주체의 행위, 상태, 성질에 관하여 서술하는 말이다. 문장에서 '어찌한다, 어떠한다, 무엇이다' 등에 해당하는 성분이다.

##### ③ 목적어

목적어는 서술어의 지향어로서 행위의 대상 또는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다. 문장에서 '무엇을' 혹은 '누구를'에 해당하는 성분이다. 목적어는 체언이나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절에 '을/를'이 결합하여 이뤄진다.

##### ④ 보어

보어는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문장성분으로서, 체언 또는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구나 절에 '이/가, (으)로, 왜/과' 등이 결합하여 이뤄진다.

문장은 인간의 사고나 개념 또는 어떤 사실을 일정한 규칙을 갖고 구성성분을 체계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앞에서 살핀 사회, 문화에서 인간의 사상이 그것의 목표와 절차 그리고 수단이라는 하위체계를 갖듯이 문장에서도 그것의 목

표(목적), 절차(서술), 그리고 수단(보어)으로 체계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간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한국의 전통조형에 관련하여 꾸며놓은 문장을, 문장의 구성성분을 갖고 분석적으로 체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형이란 작가의 사상(思想)을 표현한 것이므로, 관계되는 용어의 상당부분이 표현에 관계되는 심리나 감각에 관련되는 정도(degree)나 성상(state)에 관련되는 것이 많다. 즉 '어떤'과 '어떻게'에 관한 많은 표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주성분을 꾸며주는 종속성분에 관하여 살필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① 형용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해 서술하는 말이다. 즉 이것은 문장에서 '어떤' 혹은 '무슨'에 해당하는 말이다. 어미는 '(으)ㄴ, -는'이 명사 앞에 놓이거나, '...(이)'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형용어는 감각형용어, 심리형용어, 평가형용어, 비교형용어, 존재형용어, 지시형용어 등으로 나눈다. 이중에 조형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감각형용어, 심리형용어, 평가형용어<sup>1)</sup>가 해당된다.

② 부사어는 주로 동사어나 형용어 앞에서 그것을 수식하는 말이다. 이것은 문장에서 '어찌(어떻게)'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 부사어는 의미에 따라 정도부사어, 성상부사어, 시간부사어, 장소부사어 등으로 나뉘는데, 조형작업에 관련되는 것은 정도부사어와 성상부사어<sup>2)</sup>이다.

(2)종합

앞에서 나열한 사회, 문화의 하위체계와 관련하여 언어에서 문장의 체계를 연관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체계구분	유사한 개념어	사회	문화	문장
목표	내용, 의미, 관념 (for)what	이데올로기, 관념	가치	목적; '무엇을' 위해 명시(형)
절차	방법, 원리, 형식 (by)how	사회구조, 제도(규범)	규범	서술; 어찌+ ...한다 부사+동사
수단	수단, 재료, 기술 (of, with)which	기술 경제	용구 (물질)	보충;어찌+어떤+무엇으로(무엇과) 부사+형용사+명사(형)

위의 도표의 내용을, 디자인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분류하는 중요한 측면(속성 또는 고려해야 할 사항)세 가지와 연계시키면 결국 아래와 같다.

목표는 디자인에서 인간적 측면, 상징적 기능 또는 의미로 정리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관념으로 볼 수 있다. 절차는 디자인에서 미적측면, 미적기능 또는 형식으로 정리되며 디자인의 구성원리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단은 디자인에서 기술적 측면, 실제적 기능 또는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재료, 매체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

1)감각형용어:감각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고(예;하얗다, 달다, 크다, 낮다, 가깝다 등)  
심리형용어:심리를 나타내는 말로(예;슬프다, 싫다, 분하다, 아프다, 답답하다 등)  
평가형용어:대상에 대한 평가를 뜻한다.(예;근면하다, 성실하다, 용감하다, 아름답다, 착하다 등)

2)정도부사어:어떤 동작, 상태, 성질 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고(예; 가장, 아주, 꽤, 겨우, 한결, 조금 등),  
성상부사어: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한정하는 말로서, 대부분 형용사에서 부사로 전성된 것이다.(예;넉넉히, 급히, 어렵듯이, 꾸준히, 열심히 등)

위와 같이 정리된 체계를 빌려 조형을 포함한 일반적인 인간 행위의 내용을 문장으로 분석·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 있다.

문장 성분	주성분	주성분	종속성분+종속 성분+주성분	종속성분+주성분
의미	주어 주체의 의미	목적어 목적의 의미	부사어+형용어 +보충어 보충의 의미	부사어+서술어 서술의 의미
내용	(주체는);	'무엇을' 위해;	어찌+어떤+무엇으로(무엇과)	어찌+...한다.
예문 (일반)	생략할 수 있음	식사를 하려고 즐거운 삶을 위해	식당으로 아름다운+여인과	간다 결혼한다.
예문 (조형)	생략할 수 있음	추상미를 표현코자 생명감을 위해 단아함을	많은+선이 중중+굵은+선으로 백토를이용한+상감 기법으로	깊은+음각(을)한다 다 섬세하게+표현한다.

3. 맺으며

모든 인간의 행위는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을 명증하게 분석하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밟으며, 구체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룬다.

이러한 점은 인간의 사상이나 개념을 부호로 표현한 언어에서 문장의 경우, 그것의 주성분을 살펴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리고 보충어로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주격어인 주체를 생략하면, 앞의 목적, 절차 그리고 수단이라는 체계의 총위와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이렇듯이 인간은 그의 사상을 언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간 다소 모호하고 산발적으로 정리, 표현된 한국 전통 조형에 관련된 어휘들을 위의 체계에 따라 총위별로 정리함으로써 전통 조형의 구현체계와 그 방안을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방법은 구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의 최종단계에서, 종합안을 도출할 경우에도 앞의 체계는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총위별 체계에 맞는 적절한 최선의 어휘를 선택하여 디자인의 개념과 목적에 적합한 조형원리와 구체적 수단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노길명 저, <문화인류학의 이해>, 일신사, 2001.
- 한상복·이문웅·김광역 저,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유현정 저,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1998.
- 이주행 저, <한국어 문법의 이해>, 월인, 2001.
- 고영복 저, <문화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 1997.
- 데이비드 카플란·로버트 매너스/최협 역, <인류학의 문화 이론>, 아남출판사, 1994.